

2024 겨울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커버스토리]

레바논의 삶

[특별 주제]

기후 위기의 최전선

[현장의 목소리]

활동가 인터뷰

[사무소 소식]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쌀쌀한 겨울바람과 함께 어느덧 2024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연말연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분쟁과 기후 위기,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견뎌내야 하는 나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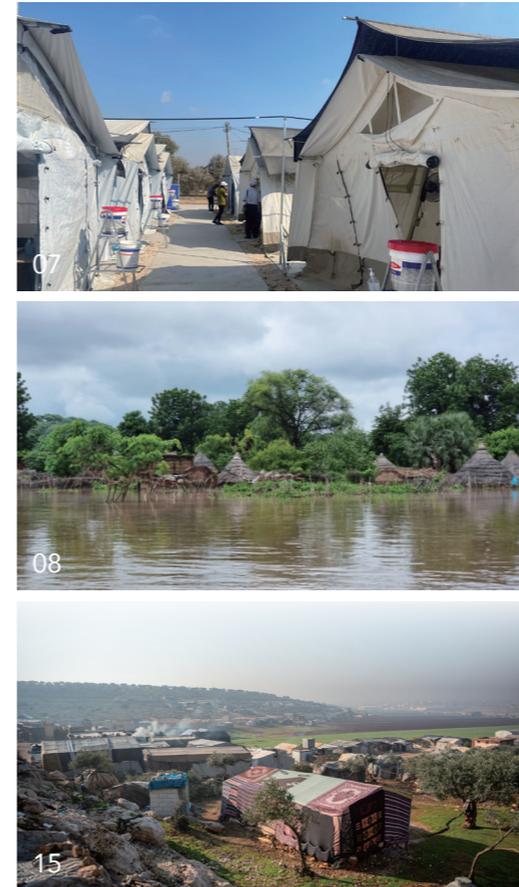
이번 국경없는의사회 겨울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최근 몇 달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레바논의 현황을 다룹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기 상황에 발맞춰 대응을 조정 및 확대하며,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차드,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상황과 더불어 1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수단, 가자지구의 상황도 함께 조명합니다. 요르단, 남수단, 그리스,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지원 현장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사무소는 2025년부터 분기 매거진 발행을 연간 3회에서 2회로 줄여 탄소 발자국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횡수가 줄어드는 만큼 보다 알차고 밀도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름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 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활동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마음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2025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변함없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엠마 캠벨



목차

- 04 커버스토리
전쟁의 그림자가 남은 레바논의 삶
- 07 가자지구의 아전병원
- 08 기후 위기의 최전선
- 10 잊혀진 위기, 수단
- 12 국경없는의사회 정신건강 활동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법
- 16 활동가 인터뷰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
- 18 후원자 인터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 20 후원 소식
- 22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COVER STORY

안전을 찾아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바스 Abbas, 28세와 그의 아들 아미르 Amir, 8개월, 2024년 10월. ©Antoni Laliccan/Hans Lucas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4 여운빌딩 3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www.msf.or.kr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발행일** 2024년 12월
- 발행인** 엠마 캠벨
-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 디자인** (주)헤즈 대표 배명섭
아트디렉터 원상철
디자이너 주혜슬

[COVER STORY]

전쟁의 그림자가 남은 레바논의 삶

지난 9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지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지역에서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실항민 가정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와 세계 최악의 경제 붕괴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복합적인 위기의 장기화에 더해 전 국민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동진료팀을 파견해 심리적 응급처치, 일반 진료, 약물 제공,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필수 물자를 배급하며, 실항민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식수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실항민을 위한 '키친 프로젝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는 알 아자리에 Al Azarieh 피난처가 있습니다. 한때 변화한 상업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폭격과 습격으로 집을 떠난 실항민 2,500명에게 쉼터가 되고 있죠. 국경없는의사회는 여기에서 '키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현지 비정부단체 아흐라 파우다 Ahla Fawda와 바르자크 Barzakh 식당이 합작해 지역 주민에게 무상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재료 공급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요리해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위생에 중점을 두고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요.”

_코도르 알 아크다르 Khodor Al Akhdar / 바르자크 식당 운영 책임자

국경없는의사회 물류팀은 알 아자리에 피난처에 있던 빈 공간을 완전한 주방으로 탈바꿈시켰고, 아흐라 파우다와 바르자크 식당은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이 주방은 매일 약 2,500인분의 끼니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속 레바논에서는 지역사회 주도 이니셔티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실히 필요한 연대와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_엘레나 페르난데스 타자두라 Elena Fernandez Tajadura / 국경없는의사회 긴급대응 물류 코디네이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외에도 레바논 전역에 22개의 이동진료팀을 파견해 심리적 응급처치, 1차 의료 및 의약품,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담요, 매트리스, 위생 키트와 같은 필수 물품을 배급하고, 실항민이 모인 학교와 대피소에 물을 트럭으로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알 아자리에 피난처에서 실항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4년 10월. ©Tracy Makhlof/MSF

전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헬프라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알 자리에와 같은 집단 피난처에 머무는 주민들의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수요에도 대응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를 목격하는 경험은 특히 아동의 심리적 및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아이들은 강제로 집을 떠나고, 학업이 중단되며, 친구들과 헤어지고,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전쟁 속 삶은 어른에게도 힘겹습니다. 많은 국경없는의사회 환자들이 끊임없는 폭력 위협으로 압도감과 트라우마를 겪었고, 불안정한 상황 속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피난 중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행동 문제, 가령 분노, 공격성, 기타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발견하고 있고, 아동들의 안위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정신적 외상이 수면 장애부터 식욕 상실까지 초래하면서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_아마니 알 마샤크바 Amani Al Mashaqba / 국경없는의사회 베키 Bekaa주 정신건강 활동 책임자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전역의 이동진료소에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교육을 제공하는 등 실항민들에게 1차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프라인을 개통해 실항민들이 불안, 슬픔 등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증상 관리를 돕는 임상심리사들에게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헬프라인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서비스를 대면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격렬한 폭격과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이동진료팀은 2024년 10월 21일 기준 약 5,000명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그룹 세션을 제공했고, 450명 이상에게 정신건강 개별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거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주는 등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공습이 발생한 레바논 남베이루트 지역의 전경. 2024년 9월. ©MSF



끝나지 않은 레바논의 인도적 위기

겨울이 다가오면서 실항민의 상황은 더욱 열려스럽습니다. 수천 가구가 여전히 파괴된 집, 임시 대피소, 버려진 건물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더해 적절한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은 특히 아동과 고령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휴전 이후에도 고위험 지역에서 의료지원, 이동진료와 식수위생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영하의 기온 속에서 주민들의 수요는 막대합니다. 특히 아카르 Akkar와 같은 산악지역에는 난방시설이나 깨끗한 물이 부족한 가구가 많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담요와 기타 물품을 배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한복, 난방시설, 겨울철 대피소 마련 등 긴급한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휴전이 선언된 이후에도 레바논의 인도적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릴 Khalil의 아내와 손녀 자하라 Zahra는 대피소가 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Tracy Makhlof/MSF

가자지구의 야전병원



2023년 10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43,000명의 사망자와 102,000명의 부상자 (출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11월 5일 기준)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의 90% 수준인 약 19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했고, 그중 100만 명이 이상이 이스라엘이 지정한 알 마와시 Al Mawasi 지역 내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밀한 피난처에서는 여러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 마와시에 고립된 피난민들은 식량이나 비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품부터 의료지원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9월 데이르 알 발라 Deir al Balah에 야전병원을 개원한 지 한 달 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의료 활동을 확대하여 소아 입원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병상 18개를 추가 설치해 전체 병상 수를 51개까지 늘렸습니다. 지난 9월 이 야전병원을 개원한 이후로 국경없는의사회는 16,000여건의 외래 진료를 실시했으며, 이 중 약 36%는 호흡기 감염 환자, 약 22%는 피부 감염 환자였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한 달간 치료한 입원 환자들은 약 134명이었습니다.

- 1.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 소재 야전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소아 환자들에게 필수 치료를 제공한다. 2024년 10월. ©MSF
- 2. 국경없는의사회가 보건부와 협력해 데이르 알 발라에 조기 개원한 야전병원. 2024년 8월. ©MSF



가자지구 내 의료지원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피난민 캠프 내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고, 겨울에는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환자들은 퇴원하더라도 애초에 질병을 얻었던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전'뿐입니다.

야전병원은 전쟁으로 보건의료가 무너진 데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가자지구의 의료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1년간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36개 병원 중 16곳만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매년 겨울이 되면 '작년보다도 더 춥다'는 한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국경 너머 차드,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 차드

차드 실라Sila주 소재 쿠쿠 앙가라나Koukou Angarana 및 인근 지역은 2024년 8월 9일 파괴적인 홍수를 겪은 이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당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집이 파괴되고, 보건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홍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곳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 수요는 식량과 식수위생, 피난처 강화, 1차·2차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 피난처에는 아동이나 임신부를 위한 담요조차 거의 없으며, 방수포는 부족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와 폭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물리적 보호 수단 부족은 급성 호흡기 감염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발병을 촉진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천 명의 이재민이 홍수를 피해 피신한 언덕에 보건지소를 마련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1,850건의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340명이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였고, 265명이 말라리아 양성 진단을 받았으며, 220명 이상은 설사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32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를 제공하고, 말라리아 검사를 실시하고 간헐적 예방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차드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범람된 쿠쿠 마을의 전경. 2024년 8월. ©MSF



📍 나이지리아

2024년 9월 발생한 폭우로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주 소재 알라우Alau댐이 범람하면서 마이두구리Maiduguri시 안쪽으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주택과 시장, 논밭, 가축, 여러 의료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르노주 당국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임시 피난처 30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난처 대부분은 학교에 마련되었으며, 화장실이 부족하고 안전한 식수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여러 피난처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점검하고, 물 트럭·탱크를 활용해 물을 제공하며, 화장실을 설치 및 보수하고, 모기장을 배급하는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난처에서 외래 진료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중증 환자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및 콜레라 위험을 고려하여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라리아 환자 수요에 맞춰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소아과 시설의 병상을 100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필요에 따라 100개 병상까지 확대 가능한 콜레라 치료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이 위험하고 콜레라와 말라리아 유행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전부터 말라리아와 급성 수인성 설사병에 걸린 아동 수가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홍수 이후로 콜레라와 관련된 임상적 징후를 보이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인도적 지원, 특히 식수·위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닥터 이살레이 압델 카데르Dr. Issaley Abdel Kader / 국경없는의사회 나이지리아 현장 책임자



1. 마이두구리 소재 강가에 서 홍수로 파괴된 가옥들. 2024년 9월. ©Abba Adamu Musa/MSF
2. 마다가스카르 남동부에 위치한 이콩고 지역은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 보건센터에 가려면 강을 건너거나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6월. ©Miora Rabearisoa/MSF

📍 마다가스카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는 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사이클론 바치라이Batsirai와 엠나티Emnati가 강타하면서 주요 농작물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클론 이전에는 영양실조율이 1%로 안정적이었던 이콩고Ikongo 지역은 두 차례 사이클론 이후 17%까지 급증했으며, 2024년에 이르러서야 6%로 감소했습니다.

사이클론 이후 농업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2~4월과 10~12월까지 지속되는 식량 부족기를 감당하기에는 수확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식량 부족기가 우기 및 사이클론 시기와 겹쳐 농작물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수확기에는 보건센터에 등록되는 영양실조 환자가 90~200명에 그치는 데 반해 식량 부족기에는 월 최대 700명에 달하는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해 지원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2022년부터 현지 보건부와 협력해 영양실조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콩고 지역의 6개 보건센터와 1개의 집중영양회복센터CRENI를 통해 중등도 및 중증 급성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개시 이래 총 4,140명의 영양실조 아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 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영양실조 지원을 넘어 식수위생 및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포함하며, 지역 주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파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잊혀진 위기, 수단

우리가 수단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총알이 관통한 중앙 다르푸르주 질링게이 수련병원 수술실 창문. 2024년 4월. ©Juan Carlos Tomasi/MSF

수단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은 수단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들의 신체 및 정신적 상처는 보건 체계 붕괴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단 위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 수개월간 특히 전투가 수단 각지에서 격화되면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 영양

실조, 폭력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 실함과 예방접종 중단, 생활 환경 악화로 인한 전염병 발발,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모성보건 관련 서비스 부족 사태... 1979년부터 수단에서 활동 중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지금도 폭력, 실향, 보건 체계 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구명 지원을 제공하고자 수단의 18개 주 중 11개 주에서 20개 이상의 의료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수단 긴급대응 활동은 수단 국적 직원 926명과 해외 출신 직원 11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단 보건부 직원 1,092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든 무장 세력이 수단 내 인도주의 및 의료 구호 접근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수단 긴급대응 활동 최신 내용,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북다르푸르

- H** 제 1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PHCC
- H** 제 2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PHCC
- H** 제 1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 H** 타월라 병원

서다르푸르

- H** 엘 제네이나 수련병원
- 무르네이 병원
- 베이다 병원
- 포로바랑가 병원
- 아라라 PHCC
- 하빌라 병원
- 로말리아 PHCC

중앙 다르푸르

- H** 잘렌지 수련병원
- H** 로케로 병원
- 소로토니 PHCC
- 우모 PHCC

남다르푸르

- H** 니알라 수련병원
- 카스 병원
- 알 와흐다 병원
- H** 칼로키팅 PHCC
- H** 토론 통가 PHCC
- 벨리엘 PHCC
- H** 니알라 외곽 캠프 내 PHCC 진료소 3개
- ICCM 지점 15곳 (카스, 니알라, 남부 제벨 마라)

PHCC = 1차 의료지원 센터 / ICCM = 지역사회 환자 통합 관리

- H**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활동
1차 의료지원, 외과 활동, 환자 이송
- 의료시설 지원
인사 업무 지원, 물류 활동, 식수위생 활동
- ▲ 콜레라 대응
콜레라 치료 센터 및 병동 운영과 지원

나일강

- ▲ 콜레라 대응

카르툼

- H** 바사이르 수련병원
- 샤히드 와다탈라 PHCC
- 움다완반 병원
- 알반 알 자디드 병원
- 알 나오 병원
- 알 불룩 병원
- 알 사우디 모성 병원
- 튀르키예 병원
- ▲ 콜레라 대응

카살라

- ▲ 콜레라 대응

백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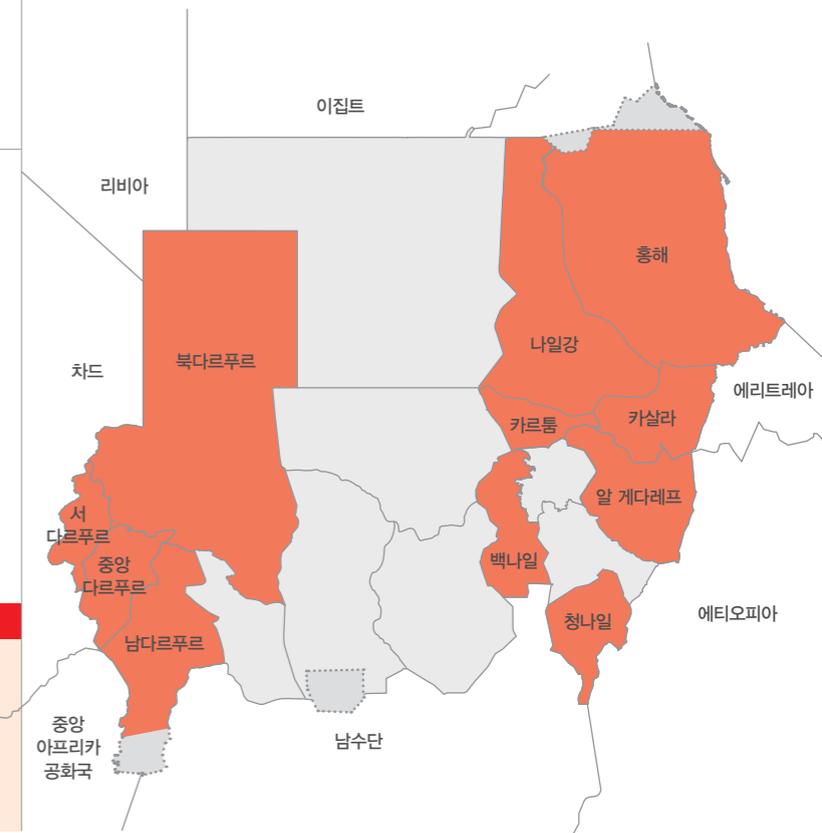
- 텐달티 병원
- 알카사파 병원
- ▲ 콜레라 대응

알 게다레프

- ▲ 콜레라 대응
- H** 움 라쿠바 병원
- 알 파오 병원
- H** 타네드바 병원
- H** 국내 실향민 대상 이동진료소 운영

청나일

- H** 다마진 수련병원
- H** 지역사회 이동진료소 운영



국경없는의사회 정신건강 활동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법

‘국경없는의사회’라고 하면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국경없는의사회가 신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바로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한국에도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져 피곤함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요르단, 남수단, 그리스, 그리고 시리아 등지에서 펼쳐온 정신건강 지원 활동을 알아봅니다.

요르단 암만 소재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가자지구 출신 청소년 카림은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회복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4년 8월. ©Moises Saman/Magnum Photos



요르단

암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정신건강 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실업, 빈곤, 높은 중독률, 이전 전쟁으로 인한 장애 및 절단으로 인해 이미 우울증과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자택이 파괴되고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삶을 뒤바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암만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팀은 이전부터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주변 지역에서 분쟁으로 인해 급성 트라우마를 입은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가자지구에서 의료 대피를 통해 암만으로 전원될 수 있었던 소수의 아이들에게 일대일 심리 지원은 물론 교육 활동과 작업 치료도 제공하여 자신감을 불돋아 주고자 노력합니다. 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지원과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암만 병원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임상심리사 닥터 알 살렘에 따르면 청소년은 특히 급성 스트레스와 삶을 뒤바꾸는 부상에 취약합니다. 그는 끔찍하고 삶을 뒤바꾸는 부상을 입은 청소년 환자들이 괴로운 기억과 정신적 트라우마 대처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이제 막 성격과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행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죠. 이들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작업 치료를 하고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닥터 야흐마드 마흐무드 알 살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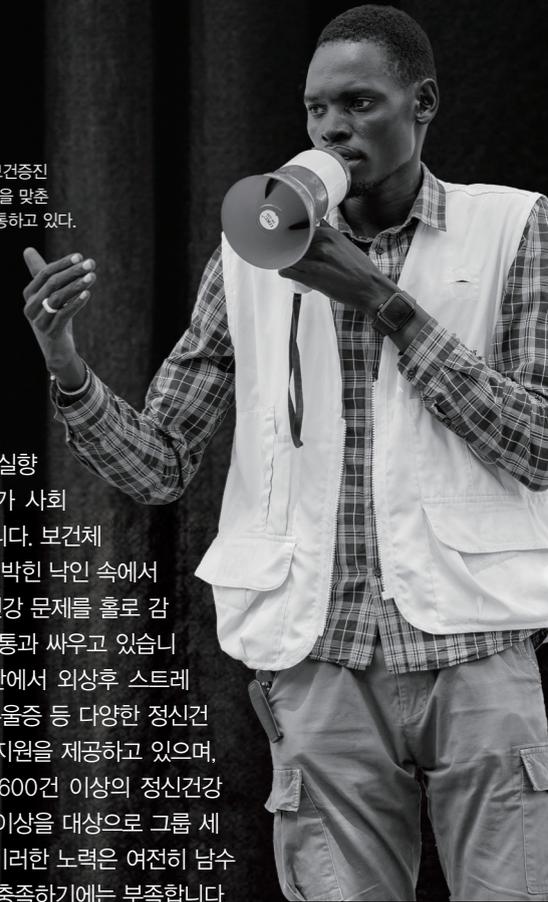
남수단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 교육 직원이 정신건강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4년 8월. ©Isaac Buay/MSF

남수단

남수단에서는 빈곤과 폭력, 실항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체계로부터의 소외와 깊게 뿌리박힌 낙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홀로 감내하며, 매일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울증, 산후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9,600건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5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그룹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남수단 내 정신건강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폭력과 빈곤, 그리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을 집에 가두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슬로 묶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 및 인프라, 정신건강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고도소와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수감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수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병원에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은 가족과 함께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제한과 취업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 삶의 질이 더욱 크게 떨어집니다. 남수단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보건 체계에 정신건강 관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수단 주민들이 빈곤과 실항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

그리스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은 망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임상심리사이자 정신건강 활동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파노스 밀로나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향에서부터 여정 도중 겪은 폭력, 고문, 성폭력 등의 경험이 그리스에 도착한 후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이주민들은 자살 충동과 불안,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일상을 견뎌야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의료 접근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접근성 상실은 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앗아가고, 심리적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홀로 여정을 떠난 미성년자들은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캠프에 이송되어 보호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성년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공간을 제공하며,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정서적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만으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파노스는 보다 빠른 망명 신청 절차, 캠프 내 생활 여건 개선, 의료 접근성 보장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사모스의 외딴 해변에 갓 도착한 남성에게 의료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2024년 3월. ©Myrto Mouzaki/MSF

시리아 북서부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13년 넘게 이어진 전쟁과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인해 400만 명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이 중 350만 명은 국내 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상실, 열악한 생활 여건, 반복된 이주 등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미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지진은 이러한 정신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북서부 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63%는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생활 여건과 폭력, 가족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2024년 해당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12,000건 이상의 개인 상담과 69,000건

이상의 그룹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대응 계획(Syria Response Plan)의 자원 부족으로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 북서부 주민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 중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피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렇듯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시리아 북서부에서 심리 지원과 의료지원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세계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의료 구호 활동에 정신건강 지원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이유,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정신건강,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활동 분야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도 정신건강을 보살피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리아 북서부 소재 실향민 캠프의 전경. 2023년 12월. ©Abdulrahman Sadeq/MSF

[정의 활동가 인터뷰]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

올여름, 아프리카 차드로 다섯 번째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다녀온 산부인과 전문의 정의 활동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점점 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정의 활동가의 다섯 번째 활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의 활동가님,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지난해 수단 전쟁 발발 이후 난민이 급증한 차드의 아드레에 다녀왔습니다. 산부인과는 과 특성상 근무 강도가 세서 파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것은 밤중에도 언제든지 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웃음). 이번엔 특히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저 혼자였어요. 즉, 두 달 내내 당직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틀에 한 번 꼴로 밤에 병원에 불려가서 수술을 할 일이 생겼어요.

주로 어떤 환자를 보셨나요?

아드레 인근에는 보건소만 있고, 제가 근무한 곳이 차드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 보건소에 다니던 산모들도 수술이 필요하면 우리 병원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전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니 ‘어? 아기를 낳아보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네?’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차드는 보건소에는 물론 심지어 병원에도 초음파 검사 기기가 없으니 산전검사 시 초음파로 진단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아드레 병원의 초음파 기기도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한 그 병원에서 유일한 초음파 기기였어요. 산부인과 의사 경력도 20년이 넘지만, 그런 저로서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모가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배가 심하게 불러서 내원했다가 초음파 검사 후 양수과다증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고, 전치태반인 경우도 있었어요.

차드도 그렇고 제가 가본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에서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집에서 낳으면 물론 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2-3일 시일이 흐른 후야 병원에 오게 되어 이미 아기도 죽어있고 산모의 자궁도 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건진행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죠. ‘병원 은 아니더라도 보건소이라도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곳리치나 교육 활동을 하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나요?

자궁파열로 온 환자가 있었어요. 이미 진통을 하루 넘게 하고 자궁문도 다 열렸는데 아기가 안 나와 내원한 경우인데, 아기 심장 박동이 확인이 안됐어요. 초음파를 보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고 뱃속에 피가 많이 고여서 자궁파열이 의심되었습니다. 자궁파열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산모마저 사망할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사산된 아기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꺼내고 파열된 자궁은 봉합했습니다. 보통 자궁이 파열되면 1-1.5리터 정도 출혈이 발생합니다. 수술 직후엔 환자가 괜찮아 보였는데 속으로 돌아오니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오르며 배가 불러오니 다시 와서 봐 달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또 출혈이 있었어요. 6시간 만에 다시 배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재수술이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언가 놓친 것, 찾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혈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산모가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는 재수술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혈압이 너무 떨어졌어요. ‘아예 자궁을 들어내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혈관에서 출혈되는 곳이 바로 보였어요. 그 부분만 지혈하고 다른 곳은 멀쩡한 것을 확인 후 다시 닫았습니다. 환자는 멀쩡해져서 퇴원했어요.

십 년 넘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지속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 저도 젊었을 때는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일종의 허영심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활동을 나간 곳이 이번 차드 현장처럼 아주 어려운 곳이었다면, 울면서 돌아와서는 ‘다신 안 나가겠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점점 어려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 저 스스로 ‘내가 그동안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이제 웬만한 수술은 다 할 수가 있구나. 유착이 심한 6번째 제왕절개 수술도 간호사와 단 둘이 하고, 마치 제가 점점 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내가 점차 내 몫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산부인과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하면 아기들을 포함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실감이 납니다. 



2024년 여름 산부인과 전문의 정의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의 산부인과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하면 아기들을 포함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실감이 납니다.



[최주희, 최윤희 후원자의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 저는 후원이란 제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내가 베푼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던 때, 의료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큰 금액을 후원한 최주희, 최윤희 후원자 자매. 그 이후에도 최주희, 최윤희 후원자는 전 세계 소외된 환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최주희 후원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시 저는 사실 제주로 여행을 갔다가 제주에 살고 싶어 그곳에 집을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재정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문득 ‘1억을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야기했는데, 듣자마자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주에 집 사는 걸 포기하고 동생과 제가 힘을 합쳐 1억 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게 된 거죠.

국경없는의사회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제가 못하는 일을 해주는 단체예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후원금을 잘 사용하여 의료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니는 “그래, 우리가 이제는 후원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어렵게 생활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였죠. 어머니가 혼자 저희 자매를 키우셨고,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산 기억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베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후원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도 동생도 무척 기뻐했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후원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원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일 것이라 기대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다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부터 먼 시간을 달려 지금의 우리에게 닿는 거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이 세상에 당장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명 한 명 환자들의 삶에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후원이란 제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내가 베푼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모두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또 다른 나 자신, 좀 더 힘든 나 자신을 미리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후원을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다. 특히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결정한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그때 용기 있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삶에 두고두고 값진 기억이고 배움이자,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망설임 없이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새해 소망이 있으신가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더 성장하고, 더 어른스러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문제가 결국 다 해결된다.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합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고액후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개 | msf.or.kr/high-value-donation
문의 | 이메일 majorgift@seoul.msf.org 전화 02-3203-3574

[후원 소식]

기업후원

이알플러스·하멜코리아,
수단에 1천만 원 기부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사이의 무력 충돌 발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하는 등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놓인 수단을 돕고자 이알플러스와 하멜코리아는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알플러스 윤소영 대표와 하멜코리아 안진오 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수단 지역에 빛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기부 활동에 대한 의지와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LS 일렉트릭·한국교직원공제회·남궁 앤 강 기념재단,
국경없는의사회 긴급 의료 구호금 1천만 원 후원

LS 일렉트릭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남궁 앤 강 기념재단은 긴급 의료 구호 활동을 위한 1천만 원 기금을 국경없는의사회에 전달하며 “지구상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없는의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동행기업이란 국경없는의사회가 보다 많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의 이름으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후원하며, 긴급 구호 상황과 전 세계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문의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 전화 02-3703-3573 | 010-7346-3580

고객후원

박동미 후원자님

프랑스 자수 작가이자 자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동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구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기부를 한다면 나의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도움과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약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곳으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과 소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원자로 초대받은 국경없는의사회 사진전에 저를 대신해 아들과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얼마 후 아들의 글쓰기 숙제를 보았는데 10억 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더불어 아들에게 멋진 마음을 알려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눔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스쿨펀드레이저



켄트대학교 <나누는 행복>

켄트대학교에서 봉사 동아리인 WAH-!와 굿즈 동아리 Ggood가 연합해서 스쿨펀드레이저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와 굿즈를 함께 판매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며 활동에 공감하고 기부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고, 작은 구매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알아갔습니다.

모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금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모금 행사를 우연히 접하고 별생각 없이 기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뿌듯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요즘에는 느낄 수 없는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신고등학교 <나눔장터>

울신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아나바다 활동으로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또래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기부 물품을 모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었고, 기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 친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포커스 FOCUS

2024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의 위급한 인도적 위기를 조명하기 위한 활동 브리핑 '포커스 FOCUS'를 두 차례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최근 수단에서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카일 맥 날리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적 지원 어드바이저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단 분쟁 상황을 조명했고, 12월에는 타니아 하셈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프로그램 책임이 지난 몇 달간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레바논의 인도적 위기를 다루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눈여겨봐 주시는 국내외 참석자분들 덕분에 이번 브리핑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미싱맵 프로젝트: 매패톤 Mapathon

지난 9월과 11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두 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행사 '매패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매패톤 역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매패톤은 지도 Map과 마라톤 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과 같이 계속해서 지도를 그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미싱맵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위성사진을 보고 지도를 그리는 봉사활동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다큐멘터리 상영회: 〈누군가의 일상〉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로힝야 난민과 가자 분쟁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다큐멘터리 상영회 〈누군가의 일상〉을 개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에 이어 진행된 스페셜 토크에서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와 가자에서 현장 책임자로 활동한 아룬 제간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적 지원 어드바이저가 방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141명의 참석자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귀한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디지털 캠페인: 〈당신의 일상은 안녕한가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디지털 캠페인 〈당신의 일상은 안녕한가요?〉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서는 2023년 10월 7일 그 이전의 가자지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1년간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숨지는 등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해당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는 2달의 기간 동안 뉴스레터 신규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모집되었고, 후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5달러 Time for \$5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생명을 살리는 5달러 Time for \$5' 캠페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된 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 진단기기 제조회사 세페이드와 모회사 다나허에게 모든 질병의 진단 카트리지가 가격을 5달러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4개국에서 총 206,937명이 해당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만 무려 15,68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팀은 지난 10월 17일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의료보건 옹호 활동가, 보건 정책 집행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다나허의 워싱턴 DC 본사에 직접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따뜻한 나눔이 모여,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되어 분쟁·전염병 창궐·자연재해·의료 소외 지역에서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입니다.

후원문의 02-3703-3555 / 문자기부 #1971 (3,000원)